

김우식 신임 과기 부총리 첫업무나들이

KIST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참석



KIST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우식 신임 부총리가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지난 2월10일오후 과천청사 과학기술부 상황실에서는 과학기술 부총리 이취임식이 시차를 두고 각각 개최됐다.

오명(吳明,66) 前 부총리는 이임사를 통해 “과기 부총리와 장관 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 준 직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과기부는 과기혁신을 통해 국민소득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기면서 21세기 선진한국을 열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2년 2개월간의 과기 부총리 직무를 마무리했다.

지난 2003년 12월 제24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부임한 오 前 과기 부총리는 지난 2004년 10월 18일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과 함께 부총리 부서로 승격된 과학기술부의 초대 부총리에 임명됐다. 오 부총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오는 3월 모교인 미국의 뉴욕주

립대학교 스톤니브룩 캠퍼스의 ‘유니버시티 프로페서(University Professor)’ 자격으로 대학측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건너 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김우식(金雨植)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취임식도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 직원들에게는 미래의 과학강국, 선진한국의 초석이 된다는 자부심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공식집무에 들어갔다.

또한 이날 오전에는, 우리 나라 최초로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개원 40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우수 연구원들에 대한 훈·포장을 수여했다.

한편, KIST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었다.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2월 7일 문을 연 KIST 역사관에는 1966년도 설립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설립허가장 및 정관을 비롯하여 40년 동안의 변천과정 및 산업화에 기여한 기록·영상물 및 유물들이 전시되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휴먼로봇센토, 캡슐형 내시경 미로(MIRO) 등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들을 시대별, 연구 분야별로 전시했다.

외빈식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KIST 역사관은 앞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체험프로그램에 활용되며 내·외빈 방문시 KIST를 알리고, 과학기술의 역사적 산물들을 영구히 보존하게 된다.

이날 기념행사는 역사관 개관식을 비롯하여 지난 40년간의 KIST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창립 40주년기념 사진전시회’, 그리고 과학자와 예술가가 협업을 통해 예술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하는 ‘과학과 미술의 만남 전시회’도 함께 열려 2월말까지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고수들의 만남- ‘KISTI 과학정보’ & ‘NAVER 지식검색’

두 기관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협약’ 체결

국내 최고의 지식서비스 기관들이 만났다. 지식검색포털 분야 1위를 자랑하는 NAVER를 통해 과학기술정보 최고 기관인 KISTI

의 3천600여만 건에 달하는 전문 과학기술지식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 조영화)과 NHN(주)(대표 최취영)은 2월 6일 11시 KISTI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털사이트 NAVER를 통해 KISTI가 보유한 과학기술관련 전

문DB를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가 개시되면, 사용자들은 NAVER 검색창의 전문지식과 지식레퍼런스를 클릭해 보다 쉽게 과학기술 전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KISTI가 전세계의 인력 풀을 활용해 수집한 최신 학술자료와 연구보고서, 특허정보, 회의자료 등이며 전문가 그룹이 가공한 나노기술, 부품소재, 기술가치, 전략산업, 해외동향 등의 고급 분석정보들도 서비스된다.

KISTI가 제공할 정보들은 현재 검색전용 홈페이지인 yeskisti.net을 통해서도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번 NAVER를 통한 서비스 계획은 전문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KISTI 김태중 성과확산센터장은 “최고의 만남이니 만큼,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2006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혁신으로 국가경쟁력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 과학기술중심사회를 구축' 한다는 비전 아래, 2006년도에는 참여정부 3년간 확립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범부처 총괄 기획·조정·평가체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5대 정책 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도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주안점으로는 △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술혁신 정책의 추진 가속화 △ 9조원 R&D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평가 본격화 △ 투명하고 신뢰받는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 국가기술혁신체계를 토대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가속화 △ 수요지향 맞춤형·융합형 인재육성시책 확대에 목표를 두고 주요사업으로서 △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 △ 미래국가유망기술21 개발 종합계획 수립 △ 맞춤형 과학신동프로그램 추진 △ 채권발행 조성재원을 활용한 R&D 실용화 지원 △ 대덕연구개발특구 본격 육성 및 벤처생태계 조성 △ 성과중심의 평가 본격 실시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강화 △ 엔지니어링 및 연구개발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상과 같은 시책 추진을 통해 2006년에는 IMD 국가경쟁력 국제순위에서, 과학경쟁력 세계 14위('04년 19위, '05년 15위), 기술경쟁력 6위('04년 8위, '05년 2위)를 달성해 과학기술 8대 강국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년 정부 R&D투자 전년대비 14.2% 증가

정부 총지출 증가율(5.9%)의 2배 상회

과학기술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금년도 정부 R&D투자규모(기금 포함)는 전년 대비 14.2%(1조 1천100억 원) 증가한 8조 9천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년도 정부 R&D투자 증가율(14.2%)은 200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5.9%), 복지(12.8%), 통일·외교(11.4%) 등의 증가율을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과학기술국채발행(2천252억 원) 등으로 기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한국형 고속철도 및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지원 등으로 특별회계도 늘어났다.

이러한 재원은 △ 원천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창조적 인재 양성 △ 지방 기술혁신역량 강화 △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에 집중하여 쓰여질 전망이다.

정부 전체 R&D예산 중 부처별 비중은 과기부 24.3%(2조2천억 원), 산자부 22.4%(2조 원), 국방부 12.2%(1조1천억 원), 교육부 10.9%(1조원), 정통부 9.0%(8천억 원)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정부 전체 R&D의 78.8%를 차지한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기술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산림청 R&D 예산이 14.7%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강화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 R&D예산이 15.6% 증가하였다.

정부는 R&D투자 확대와 더불어 기술개발 성과 확산, 선진적 연구개발 관리시스템 구축 등 투자효율성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중복·분산 투자의 조정, 연구장비·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R&D사업 성과평가 강화, R&D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0개 국가 대형연구사업 심층 평가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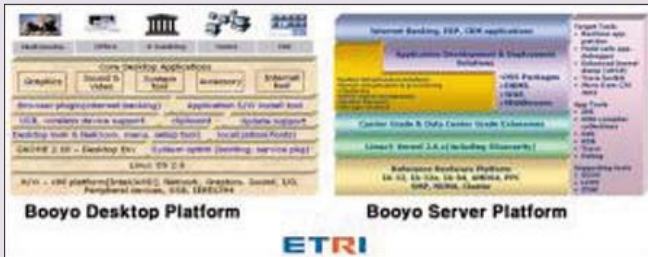
추진성과 평가 및 수정·통합 등 구체적 사업 개선방안 제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된 200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및 분야별 평가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2월 초순 11개 평가소위원회별 미팅을 시작으로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중복조정·연계 추진 필요 사업, 다부처추진사업 등 2조8천785억 원 규모의 50개 사업(세세항 단위, 사업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46%

ETRI, 리눅스 최초 국내표준 제정

리눅스 데스크탑 및 서버규격 단체표준 채택



ETRI-Booyo의 데스크탑 및 서버 플랫폼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리눅스 '데스크탑 규격 및 서버'가 단체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관련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 리눅스 배포판들은 상호 호환성이 없어 불편했는데 앞으로는 각종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시에도 표준 규격이 생겨 사용자가 쉽게 리눅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임주환)는 그 동안 리눅스 기술 개발을 꾸준히 연구해 왔고, 한국형 표준리눅스 플랫폼인 '부요(Booyo)'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번 표준채택의 성과로 표준을 따르는 리눅스 배포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국내표준으로 채택된 내용은 ETRI가 '공개 소프트웨어 핵심기술 개발' 프로젝트 결과의 일환으로 지난해 리눅스 규격 한

글 초안을 마련,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제안한 것이다.

리눅스 운영체제는 소스를 제공한 회사가 독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커뮤니티에 따라 운영체제 및 패키지들의 인터페이스가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운영체제의 호환성이 깨어질 수도 있는데 규격의 단체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리눅스 배포판들의 기준을 제시함과 아울러 사용자들이 쉽게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ETRI는 표준규격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리눅스 데스크탑 및 서버규격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자집합으로서 국제 표준을 따르며 시스템 기반에서도 국제산업 표준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시스템 기능으로 소프트웨어 호환성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규정하고 통신 프로토콜, 보안 등을 지원하며 기본 데스크탑 환경으로 그놈(GNOME)을 기본으로 하는게 특징이며 서버의 확장기능으로는 성능 확장성, 가용성, 편리성 등이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중국 국가표준으로 2004년에 리눅스 관련 규격의 제정을 시도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ETRI에 의해 채택된 것이 훨씬 구체적인 규격이다.

이와관련, ETRI 디지털융연구단 인터넷서버연구그룹장인 김명준 박사는 "리눅스의 표준규격 제정으로 리눅스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훨씬 간편해져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리눅스 표준규격의 문서 원문은 TTA의 홈페이지(<http://www.tta.or.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규모)을 대상으로 직접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평가 결과 조정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괄적 권고에서 사업내용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처 스스로 동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개선을 추진토록 하되 필요시 사업 이관 등 시정 조치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 연구개발 예산 조정·배분 방향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크게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과학재단, 세계 우수 과학저널에 협조 요청

우리 나라 과학자 논문 게재시 불이익 없도록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조작과 관련하여 '사이언스', '셀', '네이처'와 같은 세계 유수의 과학

저널 편집자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신을 송부했다.

서신내용에는 '이번 일은 연구과정보다는 연구 성과 위주의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편으로는 과학재단이 지원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를 통해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과학계의 자정능력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일을 타산직적으로 삼아 국제수준에 맞는 기준을 확립하여 철저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풍토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임을 전하면서 한국연구자들의 논문 게재시 이번 사태로 인하여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국과학재단은 밝혔다.

고가장비 공동활용 확대로 기초연구지원 인프라 강화



고가장비에너지여과 투과전자현미경

기초연구 지원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연구활동의 기반이 되는 고가연구기기, 특수연구소재 및 연구정보를 연구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성화 장려사업'의 세부사업인 △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 △ 국가지정연구소 재은행 지원사업 △ 전문연구정보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2006년도 사업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특히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은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 선정,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 입장에서의 시간적·경제적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등록방식'으로 변경하여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1억원 이상의 고가 특수연구기기의 공동활용을 원하는 연구원의 신청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연간 운영비의 80% 이내에서 장비운영비를 지원하였으나, 이 같은 지원방식을 통해서도 지원장비수(81개)가 턱없이 모자라 공동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공동이용 장비도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

어 있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선될 지원방식은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를 모두 등록하게 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그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연구자들간의 장비 공동이용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지역간 장비활용의 불균형도 어느 정도 해소되어 전국 어디서나 가장 가까운 지역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장비별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활용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동일·유사 장비의 운영자간 기술정보 교류를 통한 기술지원 수준의 향상 및 전문요원 양성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성화 장려사업 시행계획을 1월 31일 공고했다. 일정요건 이상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소·산업체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책임자는 누구든 공동이용 과제신청이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3월 23일까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hare.kbs.re.kr>)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 평가·선정작업을 거쳐 4월말에 장비 공동활용 협약체결이 있을 예정이다.

과기부는 2006년도 '특성화 장려사업' 중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에 13억8천만 원을 포함한 82억 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다른 관련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소재은행(33개)과 전문연구정보센터(18개)에 대해서는 금년에 신규 선정없이 계속과제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등과학교육과정개선을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채영복 회장은 중등과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강정 원장과의 간담회를 2006년 2월 7일 오전 11시 평가원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채회장은 11, 12학년의 과학심화선택과정 필수화, 국민공통기본과정에서의 수업시수확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교과과의 분리, 그리고 과학과목의 시수 증가 등 과학교육과

정 개선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에 정원장은 과학과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육과정 개선에 있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리에는 신재인 과총 부회장, 김재옥 한국물리학회 회장, 이은 대한화학회 회장, 신인현 한국지구과학회 수석부회장, 이길재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민정찬 대한수학회 회장 박은호 한국생물과학협회 회장, 이달환 과총 부설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하였으며, 평가원에서는 실무 본부장 및 팀장이 함께했다.

연구기획평가사 “현장 수요지향형 자격제도로 보완”

「국가 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자문·평가·기술제공 및 시험분석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한 『연구기획평가사』가 검정과목 개편, 현장근무 경력의 강화 등의 제도를 보완을 통하여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전문가로 활동할 것이 기대된다.

과학기술부와 위탁검정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연구기획평가사 모의검정 결과와 관련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보완한 연구기획평가사 시행계획(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및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공청회’를 지난 2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소재)에서 개최했다.

동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응시요건중 현장 경력을 이공계와 인문사회계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으나,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전문가 배출을 위하여 전공구분을 없애고 대신에 시험과목을 조정함으로써 이공계 출신자를 우대하기로 하였고,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경력기간을 학위별로 1~2년씩 강화했다.

검정과목은 당초의 직무능력 위주의 과목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1차 객관식 시험에 “자연과학개론”과 “기술정책학” 과목을 추가 하였고, 2차 시험은 주요 핵심 능력과 실무능력을 측정할 예정이다.

또한, 모의검정 시행(2005년 12월 10일) 결과 변별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2차 시험의 출제기준을 개선하여 단답형 및 논술형 혼합출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문항수를 늘림으로써 검정과목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제도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3월 중 제1회 연구기획평가사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9월중 제1차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핵심과학기술용어집, 한림원의 목소리’ 출판기념회 열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정근모)은 지난 2월 24일 2006년도 제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핵심과학기술용어집과 한림원의 목소리” 출판기념회도 가졌다.

이번에 발간된 ‘핵심과학기술용어집’은 4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2만여 개의 용어를 골라 이들에 대한 집중적 표준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존 ‘과학기술용어집’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원칙 없이 섞어 쓰고 있는 용어들을 정비하여 권장용어만 선택하였다는 것이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는 다른 번호로 구별한 것이다.

한편 ‘한림원의 목소리’에는 경험 있고 전문성 있는 원로 석학들인 한림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되었던 내용들은 물론이고 분야별 전문석학이 특정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집필한 개인적인 평론들도 중요하게 다루어 편찬되었다.

핵심과학기술용어집과 한림원 목소리는 과학기술 관련 유관기관과 대학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공기업 및 산하기관, 신규채용 이공계 60% 넘어

지난해 주요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인원 중 이공계 전공자가 6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는 정규직원이 300인 이상인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89개 주요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에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할 때 이공계 전공자를 사전에 정해놓은 목표 비율 이상으로 뽑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지난 2월 21일 과학기술부는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의 2005년도 추진실적 발표를 통해 이공계 전공자 채용비율은 평균 60.3%로서 당초 목표 56.3%보다 4.0%포인트를 초과했으며, 이들 85개 기관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 9천159명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5천845명(63.8%)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로서 2005년 12월 말 현재 89개 기관의 총 직원 중 이공계 전공자 비율은 53.8%로서 2004년(52.2%) 대비 1.6%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공계 전공자 채용목표제는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촉진과 과학기술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수요측면에서의 인력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4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돼 추진된 제도로, 향후 5년(2005년~2009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㉔